

18~19世紀 苗浦灣의 煮鹽

—鹽場의 分布와 煮鹽法을 중심으로—

洪 錦 洙*

본 논문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전환기적 시기에 줄포만에서 행해진 자염을 소재로하여 당 지역의 역사지리적 경관복원을 시도해 본 것이다. 먼저 자염업의 성립배경과 관련해서 줄포만은 넓은 간척지를 근간으로 한 지형적 측면을 포함해 조석·기후·식생·토양 등 자연지리적 제 조건의 혜택하에 염업이 활성화 될 수 있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인구증가·농민층의 분해·교환경제 및 어업의 발달 등이 자염발달의 촉발요인이 되었다. 당시의 염장은 고부·부안·홍덕·무장 등 4개 군현에 걸쳐 분포하였으며, 이 가운데 고부의 것은 월경지인 부안면에 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본 지역 자염의 기원지는 무장의 검당으로 비정하였다. 주요 제염설비에는 염막·염전·셋등·염정·염조·염부 등이 있었고 실 작업에는 제염도구로 채래농기구가 동원되었다. 제염은 물때에 맞추어 행해지며 셋등굴착·염토살포·염밭갈이·셋등구축·염수획득·자염의 과정을 거쳐 화염을 얻어내는 형태를 취하였다.

主要語 : 셋등, 越境地, 鹽幕, 煮鹽, 火鹽

1. 序 論

1) 研究目的 및 研究方法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물 다음으로 중요했던 소금은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생리적 기능 외에도 전산업시대에는 보편적인 교역품의 하나로 각광을 받았으며 초보적인 화폐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흉년을 당해 초근목피로 연명해야 할 상황이 도래했을 경우 소금은 救荒用으로서의 가치가 컸고, 고운에서 빠르게 부패되는 물품을 원거리까지 운반해야 한다면 월 동용 식량을 준비할 때에는 鹽藏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또한 소금이었다. 조정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재원으로, 그리고 군사전략 상으로 중요하여 특별 관리대상이 된 예도 있다.

그러나 소금이 지니는 이러한 직접적인 의미 이상으로 인류생활에 끼친 간접적인 영향 역시 지대하였다. 즉, 인류학적으로 소금은 인간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운반되었기 때문에

내륙의 오지를 사회적 고립에서 해방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염도라는 원초적 형태의 도로가 열림으로써 인간의 점유공간이 내륙 깊숙이 확대될 수 있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결국 소금의 문명사적 의의는 지역간 문화교류의 교량역할을 담당하여 생활권의 확대와 시원적 도시체계의 형성을 촉진시킨 점에 있다고 하겠다.

제염은 지역성과 시대상을 반영하며, 천일제염법이 등장하기 이전의 자염법은 특히 역사지리 연구에 적합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인식의 정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동·서·남해안의 자연·인문지리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염의 지역적 전개과정 역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자염방법에서부터 세부적으로는 자염도구의 명칭에 이르기까지 지역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바이다. 지역별 사례연구에 앞서 일반화를 도출하는 절차상의 오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듯 자염연구가 다분히 지리적 색채를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고려대학교 대학원

하고 학계내의 관심이 미진한 탓인지 관련논문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정 지역, 특정 시기를 다룬 미시적인 연구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韓國煮鹽史를 정리하는 기초작업의 하나로 18·19세기 호남지역 주요 화염생산지의 하나였던 苗浦灣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해 소금을 대개로 성립된 당대의 역사지리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줄포만의 경우 1950년대 전 반까지도 초보적인 설비와 도구가 동원되고 동력을 인력에 근거한 형태의 자염이 유지된 역사적 사실이 있고, 실제로 60세 이상되는 촌로 가운데에는 자연유형염자가 상당수 생존해 있어 직·간접적인 자료를 채록하는 데 유리한 이점을 지닌 곳으로 평가된다.

연구는 지리학·역사학·기타 관련분야에서 이룩해 놓은 국내외의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다음으로 實錄·臚錄·地誌書·기타 財務記錄의 官邊資料, 個人著述, 古文書 등의 1차자료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다고 생각되는 문건을 추출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古地圖, 日帝時代 地形圖, 國立地理院發行의 각종 最新地圖를 판독·비교하여 설명의 근거로 삼았다.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염장분포도를 작성하고 제염도구 및 제염방법을 재현하는 데 활용하였다.

文獻資料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친 現地踏査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村老들과 면담을 수행하여 얻어진 사실로써 보충하였다.

대대적으로 시행된 해안 간척사업으로 기왕의 자연혼적 조차 인멸되어버린 상황하에서 산실위기에 처한 귀중한 삶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은 화급을 다루는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바로 그러한 점에 이 논문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研究地域 概觀

苗浦灣은 크게 보아 지금의 扶安郡 山內面 弓項 서남쪽 해상에 위치한 犬島와 高敞郡 海里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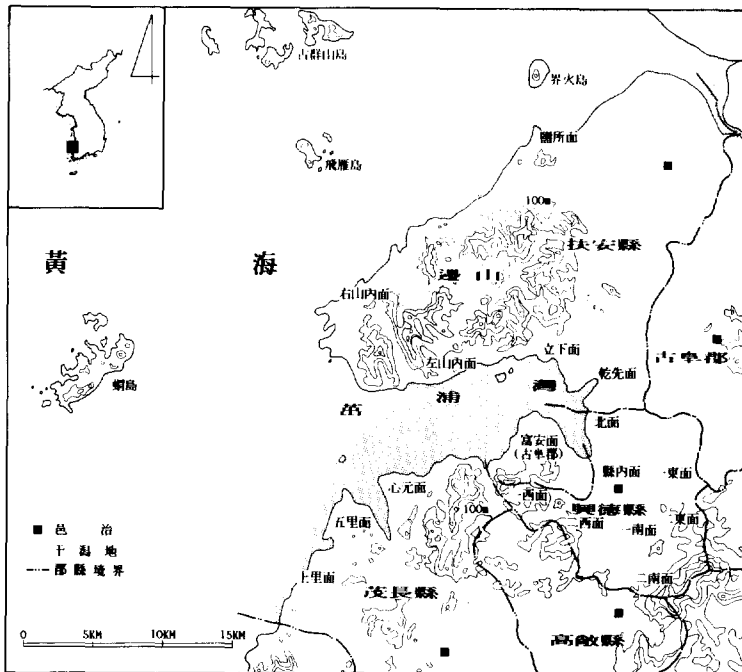


그림 1. 研究地域(19世紀 後半): 줄포만은 북방의 변산에 의해 형태가 결정되며 만 안쪽에는 간조 시 넓은 간척지가 드러난다. 18·19세기 당시에는 고부·부안·홍덕·무장 등 4개 군현의 경역에 연하여 이들 읍의 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부안면은 고부의 월경지로 나타나 있다. 등고선 간격은 100m이다.

표 1. 18·19世紀 研究地域 各 邑事例

郡 縣	管轄 面 ¹⁾	人 口 ²⁾	堤堰(庫) ³⁾	場 市 ⁴⁾	田 稅 米 (石-斗-升) ⁵⁾	大 同 米 ⁶⁾	漁 稅 錢 (兩-錢-分) ⁷⁾
古 阜 郡	19	28,651	23	5	1283-8-8	3,338	238-7-6
扶 安 縣	17	38,468	50	6	883-8-1	2,663	1498-5
興 德 縣	8	8,457	32	1	618-6-3	1,515	212-5
茂 長 縣	17	27,585	55	3	988-3-2	3,382	943-3-3

出處: 1) 道內官案(1875) 2), 3) 邑誌(1872, 1895) 4) 林園十六志(1830) 5), 6), 7) 賦役實摺(1794)

多湖里를 잇는 선을 저변으로 하여 동쪽으로 좁아드는 삼각형의 灣入이다. 灣의 명칭은 시대마다 달라져 왔는데, 古阜灣 혹은 苗浦內浦로 표기한 도서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만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는 관입된 中性火山岩類로 구성된 산지가 자리하며 특히 북방의 邊山반도는 해발 320m~500m의 고봉들로 이루어졌다. NE~SW 방향으로 달리는 邊山半島는 동일 암체로 구성된 만 남쪽의 逍遙峰(444m), 鏡水山(444m)과 함께 줄포만의 형태를 결정짓고 있다.

만 안쪽 동단부는 大寶花崗岩의 풍화토로 이루어진 고도 30m 내외의 黃土丘陵이 연속해서 남북으로 달리고 있으며, 干潮시 줄포만에는 넓은 간석지가 드러난다. 간석지상에 위치한 竹島·虎島·熊淵島·珍斗島 등과 기타 소규모의 '여(嶼)'는 따라서 潮退連陸했다. 서해상에는 줄포만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蝸島가 자리한다.

18·19세기 줄포만은 古阜郡의 월경지인 富安面, 扶安縣, 興德縣, 茂長縣 등 4개 郡縣의 境域에 걸쳐 있었다(그림 1).¹⁾ 이곳은 蝸島의 波市坪 및 七山海의 波市田과 가까와 어업이 성하였으며 소규모 갯골을 따라서는 浦口를 발착지로 하는 漁鹽商船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으며 稅穀을 실은 漕船과, 大同米나 在京地主·宮房·營衙門의 地代穀을 적재한 京江船과 地土船이 연중무휴로 통과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水路要害防守之地'로 인식되었다.

전결수로 읍의 규모를 나눈 「湖南廳事例」의 기준에 의거할 때 고부와 무장은 中邑, 부안과 흥덕은 小邑으로 분류된다. 18세기 당시의 호조 상납분 전세미 규모를 보더라도 고부와 무장의 그것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표 1), 줄포

만에 연한 이들 각 읍의 소속 面은 산지가 큰 비율을 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업경제의 비중이 미미한 편이다. 그리고 군역청 상납의 어세 전 액수를 비교해보면 부안과 무장 양 縣이 연해 지적 특징이 강하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2. 煮鹽業의 成立背景과 鹽場의 分布

1) 成立背景

(1) 自然地理的 背景

줄포만의 자연은 해수를 직접 가열하는 직자법이나 인위적으로 염전을 새로 조성해서 제염하는 대신 전통적으로 넓은 간석지면을 자연 그대로 활용하는 염전법을 취하였다. 농경지를 경작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 염전법은 地形·潮汐·氣候·植生·土壤 등의 자연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성립을 보았다고 할 수 있어 줄포만의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개별 요소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지형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광대한 면적에 달하는 염전후보지로서의 간석지가 필요한데, 줄포만은 조차가 크고 해저경사가 완만해 해성·하성 기원의 물질이 퇴적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특히 서해상의 蝸島는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동계의 거파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대신하여 만내의 간석지발달을 돕는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지역 대표적 포구였던 沙浦와 苗浦의 기능이 靑沙港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만내의 간석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줄포만의 조석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15일을 주기로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면서 운동한다. 예외적인 폭풍·해일상황이 아니라면 鹽幕까지

의 접근은 제한되며 염전면만을 적시고 빠져나가는 안정성을 보임으로써 제염방식을 염전법으로 고정시킨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 위도관측의 조석표에서 자염 성기인 6월의 상황을 볼 때 조급때의 조차는 약 3.5m, 사리때의 그것은 5~5.5m로 기록되고 있다.大潮時 고조의 평균조고를 의미하는 대조승(Spring Rise)은 6m로 관측되었고 小潮時 고조의 평균조고인 소조승(Neap Rise)은 4.6m로 나타났다.

기온·강수·바람 등의 氣候要素 또한 자염기간·생산량·작업형태 등을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扶安과 井州측후소의 관측자료를 가지고 본 지역 기후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때,²⁾ 연평균 氣溫은 약 13°C에 달하며 월별 기록을 보면 3월에서 4월,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기간에 기온변화의 폭이 커지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자염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7월 기온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장마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 日照時數는 부안의 경우 6월의 2,955시간, 정주는 5월의 2,761시간이 연중 최고치가 되어 하계의 그것을 압도한다. 증발량은 1,200~1,300mm로 타처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은 못된다.

줄포만의 降水量과 강수의 계절적 분포는 유리하다고 만든 할 수 없다. 오히려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중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7·8월에 비해 강수량이 적은 4·5·6월에 작업량이 많아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4월 초파일조금과 5월 단오조금 때 가물어야 한해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이 때의 강수상황이 그만큼 중요했음을 말해주는 사실이다.

자염철 만을 놓고 볼 때 雨期인 하계를 제외하면 降水量이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 특히 6월은 정주에서 1년 최저치로 기록되며 부안도 그에 못지않은 저량을 보임으로써 염밭갈이에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염범하에서는 한달에 두번 찾아오는 사리를 기준으로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강수는 우천시를 대비한 설비가 변변치 못했던 18·19세기의 경우 염한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5~6월과 같이 강수량이 적고 상대습도가 낮은 반면

기온이 높은 기후적 최적기에는 자본과 노동력이 총동원되어 자염이 행해졌다.

바람은 증발효과를 배가시키기 때문에 염장의 성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안에서 측정한 바에 따르면 봄과 가을에는 해풍이 우세하며 여름은 해풍과 육풍이 교대한다. 시간대별 최대풍속이 봄·여름·가을에 각각 2.4m/sec·15:00, 1.5m/sec·17:00, 1.9m/sec·16:00로 춘계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해풍의 경우 지속성이 50% 이상인 시간대를 살펴보면 봄철은 13:00~19:00, 여름은 13:00~20:00, 가을은 16:00~18:00로 기록되었다. 자염성기인 춘계의 지속시간대가 오후 일과시간과 일치한다는 것은 자염에 유리한 현상이라 하겠다.

연료확보의 용이성은 자염의 운영실적을 좌우한다. 유럽에서는 중세에 이미 석탄을 목재 대신 활용하여 염업의 '商業革命(commercial revolution)'을 달성한 바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소나무장작·잡목·갈대·억새·진초 등의 柴草에 얽매어 있었다. 그런데 줄포만을 둘러싼 인근 지역에는 크고 작은 산지가 많아 시초의 공급이 비교적 원활할 수 있었다. 여러 유형의 연료 가운데 화력이 좋은 소나무가 수목의 주종을 이루어 여건은 더없이 유리한 실정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松封山이 고부와 부안에 각각 1처, 흥덕 7처, 무장 11처 지정되어 있었는데, 특히 부안의 봉산인 邊山은 자고로 天府 혹은 材府라 칭해질 만큼 松材가 울창했다. 자염연료로 뿐 아니라 염장설비 중 염부와 함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鹽幕을 축조할 때에도 수백 株의 소나무가 필요했다. 물론 모든 소나무에 대한 벌목이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다.

그 밖에도 土釜를 축조할 때 사용되는 대나무의 경우 흥덕의 竹島와 同名異處인 무장의 竹島, 부안의 水聖堂에서 공급용 箭竹이 많이 나왔다 하므로 이 주변 환경이 대나무의 생육에 적합했음을 알 수 있다. 접근이 통제된 그들 지역이 아니더라도 대나무는 촌락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灰의 공급원도 이미 확보한 상태였으니 邑誌 土產條에는 부안의 石花와 蛤,

무장의 皮蛤이 올라 있다. 무장의 黔堂에서 굴 껍질을 가져다가 土釜를 제작하였다는 유경협자의 제보로 사실이 확인되었다.

염전의 土質에 따라 석등의 규모나 소금의 질 및 생산량이 달라진다는 것은 주의를 들 만한 사실이다. 토질은 모세관인력의 크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했는데 줄포만 제 염장과 같은 이상적인 염전터는 토양입자가 가늘고 치밀하며 염분의 흡수력이 빠른 한편 지반 전체가 단단한 '불땅'이 적격이었다.

(2) 社會・經濟의 背景

염업의 성쇠는 경제・사회・문화적 제 상황의 변화에 밀접히 관련된다. 소금소비량의 증대와 그에 따른 염업발달의 의미를 내포하는 人口成長과 관련된 측면을 볼 때, 조선후기 호남의 인구는 肅宗 4年(1678)을 기해 100만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줄포만에서 생산된 소금의 1·2차 流通圈域내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군현—전주부・담양부・장성부・고부군・순창군・부안현・금구현・태인현・홍덕현・정읍현・고창현・만경현・무장현・임실현—의 인구수만 하더라도 총 373,094명에 달하며, 줄포만에 인접한 고부・부안・홍덕・무장 각 面의 경우도 元戶 3,456戶에 14,830명에 달하는 많은 人口가 밀집해 있었다(표 2).

農民層分解는 자연인력의 공급에 기여한 바 크

표 2. 苗浦灣沿岸 各 邑의 戶口

郡 縣	苗浦灣에 沿한 面	元 戶	口
古 阜 郡		6,552	28,631
	富 安	753	3,708
扶 安 縣		7,923	38,488
	乾 先	396	1,954
	立 下	447	2,240
	左 山 內	461	2,120
興 德 縣		2,804	10,115
	北	448	1,802
茂 長 縣		6,829	27,149
	心 元	951	3,006

出處：戶口總數(1789)

다. 농민층의 이탈은 이양법의 진전, 지주층의 토지집적, 연례적인 陳災, 還穀의 弊害 등의 문제와 얽혀 17세기부터 표면화되고 있었으며, 이들 유리민은 생활타개책의 하나로 기존의 鹽民에 雇工으로 투숙, 자신의 노동을 상품으로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공들은 자연연료를 조달하거나 직접 염발갈이를 하고, 때로는 鹽主와 불때는 작업을 같이 함으로써 얻은 약간의 소득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交換經濟의 發達은 소금을 보다 신속하게 원거리까지 수송해낼 수 있는 외적 자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규모를 확장토록 유도하였다. 「大東地志」장시조에 따르면 고부 5市, 부안 6市, 홍덕 1市, 무장 5시가 5일장으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나 소금유통의 장소적 여건을 일구어 놓았다. 그리고 줄포만내의 사진포를 끼고는 하루에 2왕복하는 조수를 이용해 무동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沙浦・後浦・牛浦・石湖・苗浦・柳浦 등 유명 浦口가 다수 입지해 있었으며 이를 중개지로 船商은 어염・곡물・장작 등을 싣고 다니면서 판매에 나섰다.

이들 포구에 좌정한 主人層은 수합한 어물을 처리하는 데 소용되는 다량의 소금을 만내의 염장에서 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先貸制의 방식으로 어민과 염주에게 설비를 마련해주고 실제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상업자본가의 역할을 맡아보았다.

줄포만 주민의 어로권에 속해있던 蝸島 波市坪, 七山海의 波市田, 古群山 등지에서 잡힌, 특히 이 지역 특산어종인 조기・청어의 염장・염건처리와 관련해 볼 때 춘계의 파시칠과 연중 자염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가 일치한다는 사실 역시 어염업의 공존체제를 일층 강화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자연염 발달의 요인은 法制의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일관된 鹽業政策이 수립되어 있다면 자연도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宮家・營衙門・各司・本官 등 권력기구가 염장에서 자행하는 侵虐行爲를 다소나마 근절할 수 있게 해 준 均役法의 제정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고,

영업행정상으로도 진일보한 정책적 성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2) 鹽場의 分布

섬이 많고 해안선이 길게 뻗어 염전 대상지를 도처에 가지고 있었던 호남은 타도에 비해 제염업이 매우 성하였다. 1788년경 전국의 海稅錢數 교상으로 전라도는 42,900兩을 차지해 차위인 경상도의 27,400兩보다 약 1.5배 정도 넘어서고 있으며 최하위인 평안도와는 무려 8.5배의 차이가 날 정도로 그 담당 비울면에서는 타도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해세명목 증 염세에 관해서는 茶山이 均役事目的 鹽稅規定을 追議하여 새롭게 작성한 '試作八路鹽稅表'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³⁾ 그리고 균역법제정시 고부·부안·무장세 군현의 염세가 大1等에 22兩이라는 전국 최고액을 납부해야 했던 점으로 미루어 줄포만소금의 湖南內에서의 비중도 대단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지역 煮鹽史에서 초창기의 鹽場을 파악코자 할 경우 그 실마리는 무장현 黔堂에 있다는 '鹽井'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을 필두로 이후의 각종 地誌書에 이 鹽井에 관한 기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접당뿐 아니라 줄포만내 여러 곳에서는 鹽井에 얽힌 고사가 口傳으로 전해지고 있어 또한 흥미롭다.⁴⁾

「兜率山禪雲寺創修勝蹟記」에는 설화속에서 염정을 관장했다는 黔丹禪師가 실존인물로 설명되고 있으며 또한 생산된 소금이 山寺로 수송되었다는 중요한 사실도 밝히고 있다. 김단선사가 6세기 백제의 高僧이었다는 사실에서 자염사의 시기적 단서를 일단이나마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寺院經濟 혹은 修道院經濟에 차지하는 염업의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조선조 선운사에는 인근의 사찰을 총 관할하던 摠攝이 주재하였고, 때문에 사찰소용의 소금은 지속적으로 공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세기부터 어느정도 틀이 잡혀간 줄포만의 자연은 18·19세기에는 도처에 많은 鹽場이 들어설 정도로 팔목할 만한 신장세를 기록하였다.⁵⁾ 줄

포만의 염장은 고부·부안·홍덕·무장 등 4군현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며 특이하게 고부의 염장이 위치한 富安面의 경우 本官인 고부의 경내를 완전히 이탈한 '越境地(exclave)'로서 존재한다.

선초이래 제도의 漁箭·鹽盆은 分等成籍하여 호조, 감영, 본읍에 보관한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었다. 결국 염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는 錄案收稅한다는 입장이었다. 備局曆錄을 비롯한 여러 기록에서 염분을 논하고자 할 때 '以京外成册參考...'라든가 '取考各道成册...'한다는 표현을 자주 들고있는 사실로도 무언가 근거로 삼을만한 자료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輿地圖書」를 비롯한 관·사찬읍지에는 군현단위로 鹽盆稅錢, 鹽盆坐數, 鹽幕庫數 등의 사항을 산발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 미약하나마 염장의 분포를 확인하는 간접자료로 활용할 만하다.⁶⁾ 그 외에도 변산에서 5里안에 있는 염분 15坐를 毀撤했다든지 무장염분 43소가 변산의 松政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료상의 단편적인 기사도 보이며 光武 5년 內藏院에 올린 무장군수의 보고에는 경내에 소재한 염부수가 80을 헤아린다고 나와 있다.

建陽 元年(1896) 3월에 작성된 「茂長郡漁鹽船箭納庫數稅錢查辦成册」은 앞의 자료들과는 달리 비교적 자세하게 면단위 염세 및 염분수뿐만 아니라 실소유자의 이름까지 등재하고 있다. 줄포만에 면한 心元面의 경우 46소의 염부를 보유하여 무장군 전체 100坐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염분세 납부액은 최고 5兩에서 최저 2兩 3錢까지 다양하다. 이 자료는 查辦委員 金一河와 茂長兼郡守 姜吉壽의 조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아마 호조 및 감영 등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藏册도 이런 유형의 것이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이들 기록만을 가지고 鹽場을 도상에 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염장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자료로는 地誌書, 古地圖, 曆錄記事, 일제시의 각종 書冊 등 몇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隆熙 元年에 작성된 「韓國鹽業調查報告」와 朝鮮總督府刊 1:50,000 地形圖는 비록 시기상으로 19세

기를 벗어난 것이기는 하나 염장의 위치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이제 이들 자료를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18·19세기 줄포만내의 염장이 어느 지역에 위치했는지 확인하기로 한다.

黔丹禪師와 鹽井에 얽힌 설화, 勝蹟記 등을 통해 黔堂에 염장이 있었던 사실이 어느정도 밝혀졌다고 보는데, 「世宗實錄地理志」에도 염분 30좌를 헤아리는 무장현 소속의 鹽所 1處가 다름 아닌 今音堂(黔堂)에 소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일제시대 지형도를 보아도 엄연히 염전이 표시되어 있어 모름지기 검당의 자염사는 구한말까지 근 950년간 계속된 셈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高田浦에 염분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실고 있다. 또 礮溪의 作으로 추정되는 「東國輿地志」에서 濟安浦를 소개한 小註에 따르면 西施, 黔堂, 今勿磐 등 3개 浦 모두에 漁梁과 염분이 있었다고 전한다.

正祖 13年(1789)에 나온 「戶口總數」는 호구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되지만 面里洞의 행정구역 편성을 알 수 있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에 越智唯七이 편찬한 1917년판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과 대조할 경우 조선 후기 군현별 경계는 물론, 기타 중요한 역사지리적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도 상당히 유용한 자료로 쓰인다.

이제 부안현 立下面에 ‘鹽所洞里’가 소속되어 있다는 「戶口總數」의 기록을 토대로 越智의 신구대조 결과를 살펴보면 ‘鹽水洞’의 일부를 각각 莢田里·柳川里·南浦里가 분할·흡수하고 있어 결국 鹽所洞里(鹽水洞)가 內柳浦에서 外柳浦에 걸치는 지역적 범위내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도 염장이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홍덕에 염소가 있었다는 기록은 이미 「世宗實錄地理志」에서 접한 바 있으나 그 위치는 불명하였다. 이제 「大東地志」의 기사에서 그곳이 沙津浦 어디였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얻어냈고 「韓國鹽業調查報告」를 통해 龍沼와 後浦 사이에 염전이 표기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유력한 후보지로 아마 이곳이 될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하는 바이다.

湖南地圖에서 고부군과 무장현圖葉을 판독하면 몇 곳의 염장처를 더 확인할 수 있다. 고부군의 경우 부안면 동부에 ‘鹽所’라는 지명이 명시되고 있는데, 지금의 水東里 일대가 이에 해당되며 특히 回龍은 지금도 ‘염수(소)마을’로 통하고 있다. 「茂長縣地圖」에는 田(箭)幕에서 高田에 이르는 구간에 ‘潮進則水深一丈潮退則鹽場與沙場處’라는 註記가 나와 있다. 더불어 竹谷에서 鳴古를 거쳐 冬湖에 이르는 부분에도 ‘潮進

표 3. 18·19世紀 茁浦灣의 鹽場分布

鹽 場	存在有無	備 考
黔 堂	●	黔丹禪師說話·兜率山禪雲寺創修勝蹟記·實地·新增·東國輿地志
高 田 浦	●	新增·茂長縣地圖·全羅南北道各郡報告
水 多 洞	▲	地形(+). 마을의 歷史(+). 黔堂과의 近接(+). 鹽場의 規模(+)
鹽 所	●	古阜郡地圖
鞍 峴	▲	韓國水產誌·地形(+). 鹽場面積(+). 黔堂과의 交流(+). 漁業傳統(+)
樓 洞	▲	地形(+). 主金性滌大正七年戊午秋賭租簿
新 川	△	鹽場規模(-)
檜 木	△	鹽場規模(-)
後 浦	●	實地·大東地志·韓國鹽業調查報告
柳 浦	●	戶口總數·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新 福 里	▲	韓國鹽業調查報告·韓國水產誌
黔 毛 鎭	▲	韓國鹽業調查報告·韓國水產誌·鎭財確保를 위한 經濟的 考慮
(格 浦 鎭)	●	扶安格浦圖形邊山左右圖

● 확실히 밝혀진 염장 ▲ 존재가능성이 큰 염장 △ 가능성이 희박한 염장
 + 염장 존재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고려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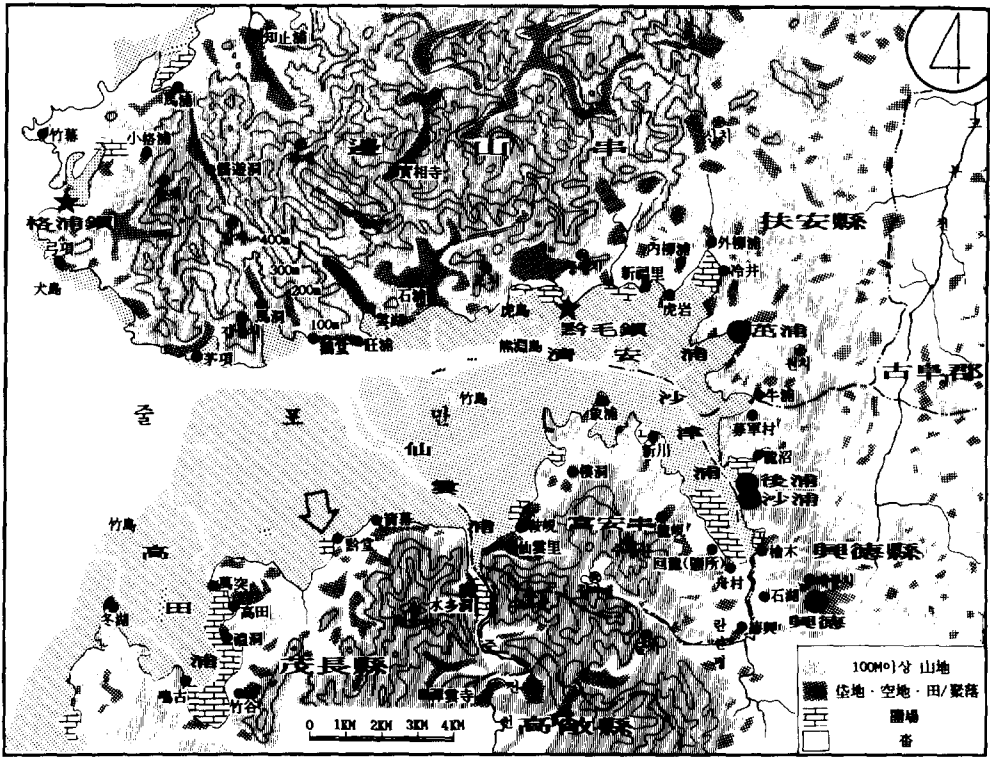


그림 2. 염장분포: 염장은 고부·부안·홍덕·무장 등 4개 군현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며 규모면에서는 무장 고전포염장, 고부 부안면염소, 부안유포염장 등이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로 표시된 점당은 점단선사에 얽힌 고사와 이후의 각종 기록으로 판단해 줄포만내 자염의 기원지로 추정 되는 곳이다(1918년刊 1:50000 지형도를 기본도로 작성).

則水深爲二丈潮退沙場與鹽場處內港淺灘'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1904년 무장군수가 내장원에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鳴古浦에는 28坐의 염분이 있었다.

『韓國鹽業調查報告』는 度支部에서 답사보고의 형식으로 펴낸 책으로 이를 통해서는 1907년 이전 부안과 홍덕의 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 자료로 삼을 만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 부안의 경우 줄포만에 면해서는 鹽幕 1庫의 石浦를 비롯, 黔毛鎮(6庫), 新福里(2庫), 虎巖(1庫), 柳川(7庫) 등지에서 자염이 행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염장에 관해서는 조선총독부 農産工部水産局에서 펴낸 『韓國水産誌』에 이 일대의 어업과 함께 소략하나마 언급은 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다만 부안면 鞍峴과 仙雲洞이 추가로 기록된 정도이다. 같은

面내의 仁村와 樓洞里에 있었던 염장에 대해서는 대지주 金性洙의 『賭租簿』에 누동리 鹽釜稅秩이 기재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 나온 지형도에서는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1918년 조선총독부 陸地測量部에서 간행한 1:50,000 지형도는 당시 줄포만에 존재했던 염전모두를 기호로서 제시해 준다. 그 면면을 보면 부안의 鎭西里·新福里·柳川里, 홍덕의 龍沼·後浦·檜木·水東里·水央里·新川·樓洞·安峴, 고창의 水多里·檢堂·高田里·禮洞·竹谷·鳴古里 등 다수의 지역에 걸쳐 있다.

이상의 제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18·19세기 줄포만의 염장치를 도표로 정리함으로써 염장의 분포에 관한 소견을 내리고자 한다(표 3, 그림 2).

3. 製鹽方法

1) 製鹽設備

역사지리적 事象의 경우 慣性을 가지기 때문에 후대에 이르면 relict feature라는 일개 景觀을 창출하는데, 염장에서 행해진 자염의 역사도 경관상에 각인되어 과거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자염의 흔적은 地名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제염 당사자인 염한의 의식숙에는 제염설비와 같은 세부의 잔적이 생생한 의식경관으로 남아있다. 그들 제염설비와 도구는 환경적인 차이를 반영해 지역에 따라 종류, 형태, 축조방법, 사용된 자재, 규모, 명칭 등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그런 한에서 지역성을 함축한다고 말할 수 있다.

鹽場에는 鹽幕, 鹽田, 鹽井, 海水貯藏池 등 제반설비가 구비된다. 그리고 製鹽道具는 전통 농기구를 직접 혹은 약간 개조해서 사용하며 여기에는 가래, 씨레, 물지게, 소쿠리, 두레 등이 포함되어 있다.

鹽場, 鹽所, 煮鹽所, 鹽煮處 등 제염이 행해지던 장소를 지칭하던 용어와 함께 이보다 구체적인 명칭으로 鹽盆이라는 용어가 사료상에 빈번히 오르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제염설비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다. 盆이란 원래 ‘단지’ 내지 ‘둥이’를 의미하지만 ‘소금을 굽는 단지’의 뜻으로도 쓰였다. 서유구도 炊事道具의 일종으로 盆을 거론하며 水盆(물둥이)과는 이름이 같지만 형태 및 기능이 다르다고 엄격히 구분짓고 있다.

그런데 鹽盆은 소금가마라는 일차적인 뜻과 아울러 염장의 單位的 意味로 사용되기도 한다. 谷城「大安寺寂忍國師照輪清淨塔碑」의 비문속에는 염분 43結의 奇進내용이 나오는데 이때의 염분은 염전을 포함한 작업장 전체의 범위를 암시하며 따라서 그 단위도 坐나 隻이 아닌 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鹽盆을 면적단위인 結로 표기한 예로는 『度支志』第4册, 財用部 煮鹽 蒜山事實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島民所

願若專屬一處則稅鹽千石逐年自納云 五十餘坐之鹽盆六十結之田土換定他處…). 염전, 염정 그리고 여타의 제반설비를 이용해 자염이 성립될 경우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은 실제로 소금을 산출해내며 收稅의 1차적 기준이 되는 鹽盆(釜)이었고 따라서 염막내의 염분은 곧 염장전체로 확대해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염장의 제염설비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鹽幕이다. 염막안에는 鹽竈, 鹽釜, ‘버섯’, ‘저탈’의 4가지 설비가 갖추어지며 실제로 소금을 굽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염막은 염전 중앙에 터를 높인 후 설치하거나 아예 내륙에 붙여 만드는데 안쪽 네 귀퉁이에 아릅드리 소나무기둥을 세워 골격을 이룬 후 서까래를 둘러침으로써 기초작업을 마치고 이어 갖추어진 뼈대에 기대어 전체 150~200여개 정도의 줄더 작은 기둥을 써서 사방을 원형으로 두른 다음 짚으로 지붕과 벽을 이어 형태를 완성한다.

염막의 높이는 약 5m가량 되며, 작업자가 자유롭게 지나다니고 염막 바깥의 연료를 안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높이 1.8m, 폭 1.2m 정도의 규모로 출입구를 낸다. 염막의 천정은 연기가 빠져나가기 쉽게 터놓아 굴뚝의 기능을 대신하게 한다. 염막 축조시 사용되는 제목은 예외없이 소나무이며 그 출처는 변산을 비롯한 인근의 松田이었다. 변산의 大松木이 茂長 등지에 鹽板, 鹽木, 大椽用으로 판매된 기록도 있어 그러한 실정을 추측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염부 2개짜리 염막이 있는가하면 소작인의 숫자에 따라 버섯의 수도도 증감이 있고 자염연료를 아예 염막내 일부에 쌓아두는 곳도 있다. 따라서 염막의 면적은 지역마다 달라지는데 50평을 넘어가는 것은 비교적 큰 편에 속했다. 염막의 규모가 클수록 우천시를 감안해 염조의 위치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설치하여 염부에 빗물이 들지 못하게 조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매년 혹은 격년으로 지붕을 갈아주기만 하면 튼튼한 염막의 경우 10년에서 15년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 내륙에 위치한 염막은 예외가 되겠지만 보통 염전내의 것은 대조시에도 물



사진 1. 鹽幕址 : 간척지 중간에 남아있는 수다동의 염막터로서 면적은 50평 남짓된다. 염막은 염장 내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하며 내부에는 염부·버섯·저탈 등의 설비가 갖추어진다. 염막뒤로는 350여년의 이주역사를 가지고 있는 해주 오씨의 제각이 보인다.

이 들지 못하도록 티를 높여놓아야 했고 염막 주변에 산재한 염주 및 소작인의 석등으로부터 가급적이면 등거리가 되도록 염장의 중앙에 축조하는 것이 상례였다(사진 1).

염막을 축조한 염장을 지역주민들은 ‘벌등’ 혹은 그냥 ‘벌’로 부르는데 윗벌, 아랫벌로 크게 나누어 명명하는 사례와 함께 세분적으로 염막 하나하나에 명칭이 붙게 되는 경우도 있다. 鞍峴의 첫벌, 둘째벌, 셋가다벌, 백벌 등이 그렇고 回龍(염수마을)을 포함한 水東里·水央里의 꿩이벌, 가매동벌, 도롱벌, 쇠정벌, 외영정벌, 상천벌 등도 세분한 유형이다. 상황은 18·19세기에도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각 벌단위 면적은, 간척이 완성된 이후 회룡의 꿩이벌이 농경지 지번 40내에 그리고 도롱벌이 50번내에 들어있으며 그들 각각의 규모가 1町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대략 3,000坪을 전후한 선에서 결정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韓國鹽業調查報告」의 부안군 통계를 기초로 파악할 때에도 염막 47처에 염전면적이 44町 7,200步로 약

46町이 되므로 평균할 때 염막 1庫당 1町 전후를 작업규모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鹽釜는 자연의 최종단계에서 소금을 산출해내는 직접적인 설비였고 호남에는 土盆과 鐵盆의 2가지 종류가 모두 사용되었다. 그러나 서남해안은 애초에 토부 위주로 자연이 시행되었고 바로 그 점이 철부를 사용했던 동해안과 비교되는 사항이다.

토부는 조개 및 굴껍질에서 얻어낸 灰를 가지고 만들며 뼈대로는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대나무가 이용되기 때문에 지역내 자연환경을 강하게 반영한다. 黔堂에서는 灰를 전문적으로 구어 인근에 공급했다 한다. 토부를 제작하는 과정은 본지역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먼저 灰를 준비한 후 물을 부어 따뜻한 곳에 하루정도 안치해 둔다. 그렇게 하면 회가 하얗게 부풀어올라 회반죽이 되는데 이를 가지고 가마의 형상을 만든다. 질차는 일차적으로 대나무를 조밀하게 염조에 걸쳐놓고 그와 수직방향으로 짚을 반듯하게 깎는다. 그 위에다 미리 준비한

회반죽을 바르면 바닥이 완성된다. 토부의 외벽은 염조의 측면에 기대어 회를 발라 만든다. 완성된 토부가 어느정도 굳어지면 대나무 살대를 제거하고 鈎鐵을 집합할 구멍을 가마바닥에 뚫는 작업을 실시하는데 염조의 네 귀퉁이에 커다란 통나무 기둥을 세운 후 縱으로 길침목 2개, 橫으로 보조목 수십 개를 배열해 놓고 제작자가 직접 그 위에 올라가 작업한다. 이때 갈고리가 들어갈 자리는 가마를 걸때 균형이 깨어지지 않도록 정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鈎鐵은 가마를 걸때 가마가 떨어지거나 밀이 빠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장치하며 이곳의 경우 대개 50여개가 소요되어 견고한 철부에 비해 많은 편이다. 갈고리는 ‘ㄱ’자형으로 윗부분을 구부러 갈고리줄을 연결할 수 있게 하였다. 줄은 새끼나 葛皮로 만드는데 염기가 들어가면 상당히 질기다고 한다. 갈고리간의 폭은 가마에서 소금을 모아들일 때 사용하는 당그레의 폭보다는 넓어야 작업에 방해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갈고리를 장착한 후 가마바닥에 생기는 틈은 회반죽으로 메꾸며 이러한 일련의 공정이 마무리되면 가마는 균형을 유지한 채 들리게 된다. 토부의 경우 큰 것은 3m×3m 규격에 달하나 내구력은 철부에 못미쳐 대략 40일의 수명을 가지며 수시로 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자염시 누수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단점은 있으나 제작에 필요한 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자염업에서 토부가 쇠퇴하고 철부가 등장하게 되자 팔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철부는 견고하고 내열성과 열전도율이 뛰어나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었으며 수시로 개축해야 하는 토부에 비해 제작에 투여되는 노동시간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던 것이다. 토부의 告破가 있을 경우 염전의 陳廢를 摘奸한 연후 면세조치가 행해진 것과 달리 철분에서는 破釜의 실제여부를 보아서 허락되었던 사실 역시 철부의 중요성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철이 매우 귀해 철부제조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鐵場이 많았던 영남에 비해 그렇지 못했던 호남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였다. 그 점은 戰兵船에 오래 전부터 鐵釘이 사용되었던 영남의 예에 따라 호남도 그렇게 해야만 船體개삭에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船材를 절약할 수 있고 그와 함께 封山の 童濯도 방지할 수 있다는 啓가 正祖代에 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8세기 초에는 鐵釜煮鹽을 금단하는 법조항이 제정될 정도로 철분의 보급이 진행된 듯한데 兩南의 松田이 날로 피폐해지는 까닭을 화력좋은 송목을 다량 소비하는 철부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돌리고 있는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세기 중엽 줄포만 인근의 흥덕, 정읍, 금구, 태인, 순창, 전주 등에 소속된 장시의 출시품 가운데 鐵器, 鐵物, 鐵鼎이 올라있는 것도 주목되는 사실이다. 이때는 봉건적 제약에서 벗어난 수공업자의 활약이 비약적으로 신장되고 있던 시기로 대장간에서는 농기구와 함께 각종 鐵器具의 제작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이하게 고부군 부안면은 한때 水鐵店에서 鐵鼎 2坐를 제작해 읍에 捧上한 바 있다. 변산 적간시에도 많은 鐵店을 철폐한 사실이 있다.

철부는 원료인 철판만 확보되면 나머지 제작 과정은 단순작업에 의해서 마무리될 수 있었다. 철판을 못을 사용해 잇고 사방 모서리를 구부려 주면 하나의 염부가 완성되는 것이다. 철부를 걸기 위해 바닥에 鈎鐵을 30~40개 접속하는 작업이 부가되는 정도였다. 均役事目的 기준에 따르면 大釜는 長廣周回 7把(14.7m), 中釜는 4把(8.4m), 小釜는 2把半(5.3m)으로 규모별 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철부는 사용 후 관리만 잘한다면 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지만 녹이 잘스는 단점이 있다.

鹽籠 역시 염막내의 주요 설비 중 하나였다. 염조는 연료를 투입하여 연소시키는 시설로 크기 및 형태는 그 위에 걸리게 되는 염부에 준해서 정해진다. 통상 염부보다는 길이와 폭을 좀 더 길고 넓게 만들며 형태상으로 방형의 것이 많았다. 지하 70cm 정도의 터를 파낸 후 진흙과 돌로 형태를 만들며 지상높이는 지면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한다. 열이 골고루 퍼지도록 4

개면의 내측은 볼록한 곡선형으로 처리하고 연료투입구인 아궁이는 밑면 길이 60cm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형으로 축조한다.

‘버섯’은 염정에서 운반해온 염수를 이차적으로 저장하는 설비로 염부 가까이에 둔다. 개흙으로 축조하되 곳에 따라 대나무와 판자로서 벽면을 두르거나 큰 항아리를 묻어 이용하기도 한다. 염막사용자의 수에 비례하여 버섯의 수가 정해진다. 형태는 원형과 방형의 두가지로 구분되며 깊이는 평균 1.2m 내외였다. 그리고 버섯은 일종의 홈통이라 할 수 있는 ‘수채’와 연결되는데, 염정의 염수는 직접 버섯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나무로 제작한 수채를 따라 흘러 버섯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한다.

염부에서 건져낸 소금을 쌓아놓는 장소를 ‘저탈’이라 하는데, 이 시설은 염막내 한쪽 귀퉁이에 염부 사용자의 수만큼 갖추어져 있다. 저탈은 따로 설비를 마련하여 할애하는 대신 경사진 바닥에 거적을 깔아두는 간단한 공간이었다. 剩餘鹽이 어느정도 발생할 정도의 규모라면 민가내에 소규모로 창고를 축조하여 임시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염막 못지 않게 기능면에서 비중이 컸던 설비

는 다음아닌 鹽井이다. 염밭갈이를 거쳐 자염하던 방식하에서 말하는 염정이란 직접적으로는 ‘염수구덩이’를 지칭하지만 그와 일체가 되는 셋등을 간접적으로 암시해주는 용어이다. 균역사목에 따르면 경기도 南陽의 경우 염부단위로 염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 염정을 大井, 中井, 小井으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다. 소금 생산량은 염수의 양에 비례하여 많아지고 염수의 양은 저장용 웅덩이, 즉 염수구덩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까닭에 염정은 염부와 함께 과세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

염전상에는 셋등이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 일종의 濾過濃縮設備로 볼 수 있는 셋등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凹形으로 지반을 파낸 후 바닥면을 고르되 농축된 염수가 한곳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경사를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바닥면은 경사진 扇形이 되고 최저지점에 연해서 염정으로 통하는 대롱이 연결된다. 이후 바닥면에 송목을 촘촘하게 배열하고 그 위에 잡목과 짚을 치밀하게 깐다. 이렇게 해서 셋등 내부 설비의 구축이 끝나면 염밭갈이를 통해 얻어진 鹽土를 덮어 半圓形의 小丘陵을 이룸으로써 하

표 4. 製鹽道具

名 稱	用 途
1. 가래	셋등·염정·둔병·버섯·도랑구축, 전회 사용을 마친 셋등 굴착
2. 쟁기	굳어진 염전면 기경
3. 씨레	쟁기로 일꾼 염전의 흙을 분쇄하여 태양열에의 노출체적 증대
4. 나레	셋등굴착시 나온 염토를 염전면에 살포, 염밭갈이에서 얻어진 염토를 모아 셋등조성
5. 들것	나레를 대신해 염토운반
6. 작살·흙통	셋등에 해수주입(셋등과 해수저장지인 둔병과의 거리가 멀 때)
7. 맛두레	셋등에 해수주입(셋등 근처에 해수저장지 갖추고 있을 때)
8. 물통·물지게	셋등에서 여과되어 나온 염수를 염막으로 운반
9. 수채	염막 밖에서 주입된 염수를 염막내 버섯으로 운반·저장
10. 지게	연료운반
11. 물틀	버섯의 염수를 염부에 주입
12. 당그레	염부에 정출된 소금을 한쪽으로 집결
13. 바가지	소금을 삼태기에 담는 기구
14. 삼태기	소금을 일시적으로 담아 보관하면서 간수를 배출하여 건조
15. 되	소금계량
16. 함지	부녀자들이 소량으로 소금을 운반해가는 용구
17. 섬(空石)	포장용기

나의 첫등을 완성한다.

첫등은 직경 15m 이상에 달하는 것에서 4~5m 정도의 소규모인 것까지 다양하였다. 세사가 섞인 염전의 첫등은 규모면에서 순수 점토질 염전의 것보다 작다고 하나 같은 지역 내에서도 대중소의 구별이 있었다. 그러한 구별은 용도상의 차이를 반영하는데, 대등의 경우 가을 김장철의 대수요기를 대비해 염토를 매번 누적시켜 나가는 유형의 것이고, 중등은醬을 담그거나 성어기에 잡힌 어물을 염장할 때 소용되는 소금을 만들 때 이용되며, 소등은 자가수요나 판매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것이었다. 특이하게 쌍첫등이라 하여 두 개의 첫등이 하나의 염수통으로 연결되는 유형도 있었다.

1개 염막당 첫등수는 염막내의 염부가 토부인가 철부인가에 따라, 그리고 염부가 하나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에 따라 달라지나 대략 5~6개는 평균적으로 부족되었고 많을 경우 수십을 헤

아려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첫등 하나에 딸린 염전면적 역시 대·중·소 첫등에 따라 달라지나 평균적으로는 200~300평 이었던 듯하다. 그렇지만 염전의 외부경계는 제염작업이 수행되는 계절이라야 확인이 가능할 뿐 휴업기에는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곤란하며 지형도상에 표시된 염전면도 엄밀한 것은 못된다.

첫등과 염수구덩이를 잇는 ‘흠통’은 2m 되는 대나무를 쪼개 속을 비우고 다시 이은 대롱을 사용한다. 흠통에 이어지는 간수구덩이는 첫등 옆의 염전만 일부를 파고 자연상태로 이용하기도 하나 측벽의 개흠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송판이나 통나무를 둘러쳐 방형으로 축조하는 예도 있었다. 목재가 염분을 머금게 되면 부식될 염려가 없어 사용상 우려할 사항은 아니었다. 염수구덩이의 수직단면은 사다리꼴로 밑면이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진다. 상부 입구의 규모는 1m×1.2m가 보편적이며 깊이는 사람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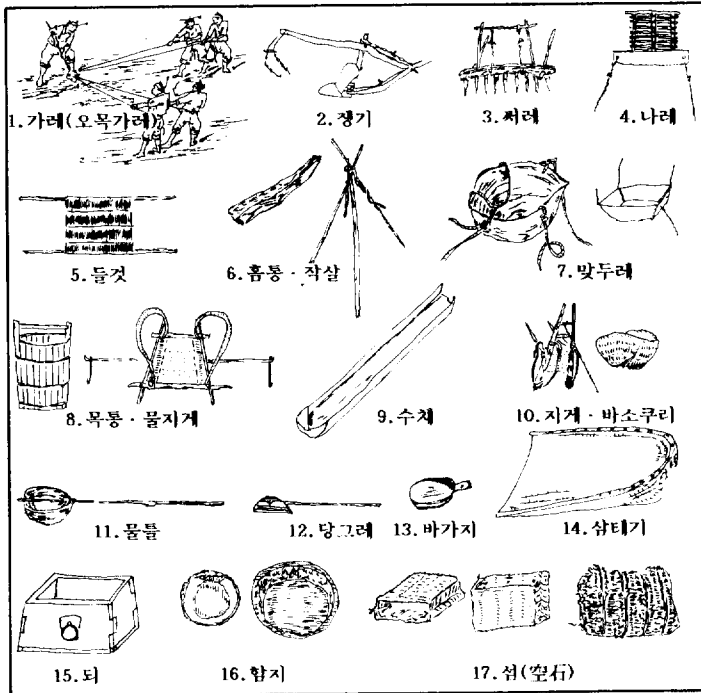


그림 3. 製鹽道具: 제염시에는 대개 재래농기구가 그 자체로 혹은 작업상황에 맞게 약간의 변형을 가해진 상태로 이용된다. 제작에 필요한 자재로는 부식에 견딜 수 있는 목재·질·싸리·대나무 등이 동원되었고 굴착용기의 경우만이 철물이 추가되는 정도였다(자연 유경험자의 증언과 농기구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복원).

길이 넘는 2m 이상의 규모를 가진것도 있었다.

우천시 또는 조수가 들 때에는 나무판자로 만든 뚜껑을 덮고 그 위에 개흙을 단단히 발라 염수구덩이를 보호하였다. 가끔 바닥에 핀 흙이나 기타 찌꺼기를 청소해주며 그 때에는 체구가 작은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호미를 가지고 작업하게 하였다.

이상의 주요 설비의외에 섯등의 염토에 농축된 염분을 용탈시키기 위해 사용할 해수의 저장지(외얏, 둔병, 매기)가 있었으며 그 규모는 2.5m 이상의 깊이에 사방 9m의 규격을 갖는 공동이용의 것과 각 섯등단위로 조치한 소규모의 것이 있었다. 이곳으로는 밀물때 들어온 해수가 자연스럽게 저장된다. 소규모 둔병을 이용할 때에는 맞두레를 이용해 해수를 섯등으로 주입하면 되나, 원거리에 위치한 큰 둔병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둔병의 벽 일부를 터 소규모 도랑인 ‘뜰집’으로 해수를 흘려보내고 섯등과 외얏의 중간 지점에 소 저류지를 갖추어 X자형의 작살과 10m 가량 되는 미류나무로 만든 흙대를 연결해 섯등까지 해수를 운송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상과 같이 鹽場內에는 鹽幕, 鹽田, 鹽井, 둔병 등 제반설비가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특징되는 경관은 아마도 염막과 섯등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자연염하에서 염장은 일종의 ‘鹽田上의 墓地景觀’을 연상케 한다.

자염에 동원된 도구는 작업순서에 따라 염발같이용, 염수 및 연료수송용, 자염용 등으로 3대분할 수 있으며, 용도상으로는 掘鑿用具, 汲水用具, 運搬用具, 計量用具, 包裝用具, 기타 雜用具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작업 진행순서에 좇아 각 제염도구의 名稱과 用途 및 形態 등의 항목을 표 4와 그림 3으로 정리하였는데, 제염공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제염도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각종 도구의 한가지 특징이라면 목재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인데 염분이 침투해도 철제도구처럼 부식될 염려가 없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製鹽過程

제염은 방법상으로 지역적 차이가 크며 그 역

사도 선사시대까지 소급시킬 수 있다. 그 원초적인 형태를 論者は 土器製鹽의 소량생산 방식으로 보는데, 소금을 얻는 방법은 시대마다 맥을 달리하여 갯벌에 낀 ‘서리소금’을 자연채집하던 형태에서 인공이 가해지는 直煮法과 鹽田法 단계를 거쳐 天日製鹽法이 나타났고 작금에는 전기분해의 원리를 이용한 이온交換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금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구려의 어염조달과 관련된 「三國志」의 기사로서 제염사가 일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줄포만의 그것도 무장현 黔堂의 ‘鹽井’이 6세기 인물인 黔丹禪師와의 관련하에 성립되었으므로 역시 긴 역사를 갖는다고 하겠다.

염정과 관련해 전해오는 설화에 따르면 걸차 염전을 활용해서 제염하는 쪽으로 제염방법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9세기 후반 무렵이 되면 줄포만 뿐 아니라 서남연해지 거의 대부분이 鹽田法으로 제염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당시의 사회발전수준을 감안할 때 연료절감은 물론 생산량의 면에서 효율적인 鹽田法을 피하고 直煮를 선택했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염전법은 직자법에 비해 일층 경제적이었다. 왜냐하면 해수의 97%를 차지하는 것은 수분이 고 나머지 3%는 탄산칼슘, 황산칼슘, 염화나트륨, 황산마그네슘, 염황칼륨, 염황마그네슘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염분은 염전법을 통해 농축된 鹽水 안에는 염도가 높을 경우 26%씩이나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주어진 열로 소금을 만든다 할 때 소요되는 노동력 및 작업상의 번거로움을 제외한다면 鹽水를 활용하는 편이 8배의 연료절감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령 10cm³의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직자법의 경우 약 30%의 수분을 탈취해야 했고 염도 10도의 염수라 해도 9%의 수분증발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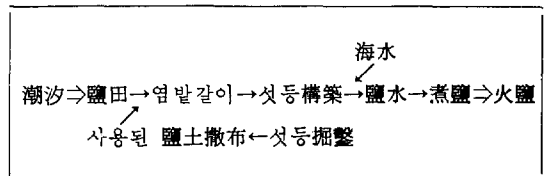


그림 4. 製鹽過程

했다.

염전법을 거쳐 煮出된 재래염은 형태상 가는 소금에 비견되며 맛에 있어서도 천일염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했다 한다. 현지 주민들은 구워서 만든 재래염을 천일제염법으로 만들어진 淸鹽에 대비시켜 火鹽 혹은 陸鹽으로 명명하고 있다. 火鹽의 제조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줄포만 화염의 생산기간은 3월 말부터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10월까지로서 장마기를 제외하면 근 6개월간 작업이 진행되는 셈이다. 물론 자염을 專業으로 하는 사람에 한해 계산한 수치가 그렇다는 말이며 농·어업과 兼業하면서 盛需期에만 자염하던 사람들은 모내기와 種穀을 해야 하는 봄철, 그리고 가을 수확기와 같은 농번기에는 제염에 가담할 수 없어 실제 작업기간은 짧게 된다.

실질적인 작업은 월별로 2주기성을 갖고 찾아오는 潮汐의 推移에 따라 진행된다. 申景濤의 물때분류에 의거할 때 朔望時에 해당하는 ‘여섯물’은 곧 사리(生伊)가 되며 이때부터 염전은 서서히 조수로 들어차게 된다. 그러다가 격기(折只)를 전후해서는 수세가 미약해짐으로써 염밭갈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때는 上下弦에 해당된다.

사리가 닳치기 2~3일 전까지 셋등은 규모에 따라 적게는 5명에서 대등의 경우처럼 7명에 달하는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행해지는 가래질을 통해 파헤쳐지고, 여기서 나오는 염분이 다 빠진 개흙은 나래로 염전면에 살포된다. 뿌려진 개흙은 사리때 들어온 해수에 침윤되어 다시 염분을 머금게 되고 풍력과 태양열에 의해 농축되면서 염토로 변해간다. 수세가 강해지기 전까지 얼마 안되는 한정된 기간내에 효과적으로 염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힘이 가해질 필요가 있었고 그 방책의 하나가 바로 ‘염밭갈이’였다.

조금(遭空)을 전후해 조수의 유입횟수가 줄어들면 먼저 단단해진 염전을 쟁기로 갈아 뒤집은 다음, 개흙의 체적을 증대시켜 태양열의 수용면적을 넓혀주기 위한 조치로 썩레질을 실시

한다. 쟁기질과 썩레질은 井자로 행해지는데 이로써 염전면은 이완되고 강렬한 태양열에 자연 건조된다. 모세관인력의 작용으로 하부의 염기가 표층으로 상승하는 반복되는 과정속에서 염분의 농도는 짙어지며 보다 농축된 염토를 얻기 위해 초벌, 두벌갈이로 행해지는 썩레질이 3~5일간 계속된다. 지역에 따라 염전면에 해수를 살포하면서 썩레질하는 곳도 있지만 줄포만에서는 그 과정이 생략된다.

잘 마른 염토는 나래를 이용해 셋등으로 모아 들인다. 셋등의 규모에 따라 작업시간이 달라지지만 늦어도 이틀내에는 다 마쳐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대등을 조성할 때에는 소를 2마리이상 동원하며 셋등내에 동서, 남북방향의 가상적인 통로를 따라 작업이 진행된다. 셋등을 파헤치는 일에서 염토를 모아 셋등을 만드는 일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여 鹽主(鹽氓, 鹽漢) 외에도 ‘구덩이꾼’ 혹은 ‘괘갱이꾼’이라 불리는 샅일꾼이 고용되어 함께 작업한다. 시기적으로 가장 바쁜 때는 기후상 연중 최적인 음력 5월의 端午조급이었다. 연간 소금 생산량의 상당부분이 바로 이 때 결정된다고 한다.

염장을 대규모로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畜力의 활용이다. 미끄러운 염전에서 무거운 개흙을 갈아엎는 작업이 쉽지 않았고 따라서 가래, 지게, 들것 등 초보적인 도구와 많은 인력을 투입한다 해도 염장규모의 확대는 기할 수 없는 처지였다. 여기에 우경법이 확대됨으로써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비롯, 시간·비용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로서 셋등 하나에 부속되는 염전작업면적의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조선 仁祖代만 하더라도 瑞山·泰安과 같이 우경하지 않고 자염했던 곳도 있어 지역마다 특성있게 영위된 듯하다. 줄포만에서는 쟁기질, 썩레질, 나래질에 소가 동원되었다.

염토를 모아 셋등을 만든 후에는 농축된 염수를 추출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당그레로 셋등을 고르면서 단단히 밟아 다져놓아야 한다는 점인데 그래야만 셋등이 꺼져거나 해수가 염분을 씻어내리지 않고 그냥 쏟아져 염수통으로 들어오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섯등을 鎭壓한 다음 가선(外緣)을 두르고 해수를 주입한다. 앞서 밝힌대로 해수는 사리며 셋등 근처에 파놓은 웅덩이에 저장된 것을 이용해 맞두레로 올리거나, 멀리 떨어진 해수저장지(둔방, 외양, 매기)의 것은 뜰집, 작살, 흙대를 활용하여 물틀로 주입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보통 이틀이면 셋등내의 염분을 용탈시킬 수 있으나 규모가 큰 대등의 경우 3일간 염수를 추출해냈다.

염수의 농도는 기후조건과 작업방법의 여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난다. 특히 기온과의 비례도가 높아 가을보다는 봄·여름에 높은 것이 사실이다. 염도는 낮을 때는 15도까지 내려가지만 높을 경우 25도는 족히 되었다. 鹽水의 度數測定은 大豆, 밭풀 또는 송진 덩어리를 띄워보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황색이 짙게 나타날수록 염도가 높다고 한다.

염수통에 고인 염수는 물지게와 목재의 질통을 써서 염막으로 운반한다. 보통 염막은 산재한 여러 개의 셋등에서 등거리가 되는 중간지점에 입지하지만 먼곳은 20~30m씩 떨어져 있어서 염수수송에 불편하였다.

염수의 양은 셋등의 규모에 따라 다소의 차가 있었는데 그 범위는 50돛에서 180돛까지 다양하며 물통 2개짜리 한지게의 용량이 4돛로 40회까지 운반했다는 鞍峯에서는 160돛 가량의 염수가 얻어진 것으로 계산된다. 운반된 염수는 염막 바깥의 '수채'에 주입되어 염막내의 '버섯'에 흘러 고이고, 염막안에서는 '가마쟁이'와 鹽主가 대기하면서 아궁이에 불지필 준비를 한다. 첫 가마 때에는 간단한 형식을 갖추어 고사를 지냄으로써 풍성한 수확을 본다.

염막안의 염부는 염주간 순서를 정해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연료와 염수는 각자 조달한다. 자신의 버섯에 저장된 염수를 '물틀'(타래박, 조롱박)로 염부의 70%가량 채운 다음 아궁이의 연료를 연소시킴으로써 본격적인 자연단계에 들어간다. 염수 1차 주입량은 염부의 용적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은 50돛 전후였다. 수분이 증발되어 염수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수시로 버섯의 염수를 재보충하되 횟수는 3회가 평균이다. 보

충된 양을 포함해 1釜의 염수량은 80돛에서 최고 120돛에 달하였다 한다. 소금결정이 석출되는 시간은 염부의 규모와 염수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은 1일 晝夜가 소요되었다.

가마에 불 때는 일은 염주와 가마꾼이 교대로 수행한다. 불길의 강약을 잘 조절해야 좋은 소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자연과정은 숙련된 기술을 요한다. 특히 소금결정이 생길 무렵을 진후해서는 염수를 더이상 첨가하지 않고 화력도 약하게 조절해야 한다. 토부의 경우에는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지 살펴야 하고 염부에 생기는 거품은 '시우채'(조죽대, 나무갈)를 사용해 건져냄으로써 소금의 맛이 쓰거나 색깔이 검어지지 않게 한다. 소금성분에는 염화마그네슘과 황산마그네슘이 각각 0.31%, 0.22%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성분은 쓴맛을 내고 腐敗防止效果를 지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調味料나 鹽藏用 소금에는 불필요한 성분이었다. 그러므로 이를 분리·수거해야만 양질의 소금을 얻을 수 있으며 거품을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그 일이었다.

자연시 사용되는 연료로는 나무장작, 마른풀, 해안변의 염생식물, 갈대, 기타 잡목 등 여러가지가 쓰이지만 주변 농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짙은 불꽃을 튀기고 검은 재를 날리기 때문에 사용치 않는다. 그러나 화력면에서는 소나무를 능가할 재목이 없었다. 소나무는 장작 외에 가지와 잎도 마찬가지로 화력이 좋고 연소가 수월해 자연에 선호되는 수종이었으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편리했다.

釜當 煮鹽高는 주입된 염수와 염수의 농도에 따라 결정된다. 일례로 염도가 26도라면 산출량은 최고 염수의 26%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염도가 높으면 그만큼 소금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결정이 커져 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생긴다. 반면 염도가 낮으면 연료의 투입량이 많아져 비용이 늘게되나 고운 소금을 얻을 수 있었다. 정출된 소금은 당그레(괘비)로 모아 바가지(죽신)로 삼태기에 담은 다음 소금가마 위의 선반에 올려 염즙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건조되면 염막내의 저탈에 부어 저장하

는데 저탈에서 흘러나오는 간수는 도랑을 통해 웅덩이에 고이도록 하였다.

간수는 두부를 만들 때 필요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급되는 한편으로 염수와 섞어 재차 자염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든 소금은 맛이 쓰고 색깔도 짙어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으며 따라서 생산자도 그냥 폐기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4. 結 論

지금까지 18·19세기 苗浦灣에서 행해진 煮鹽業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크게 3가지 측면, 즉 이 지역에 재래염업이 성립될 수 있었던 自然地理的 條件과 社會·經濟的 發達背景, 당시의 鹽場分布, 실제적인 製鹽方法 등을 소주제로 하여 각기 개별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세에서 근세로의 이행기라는 과도기적 시대상을 반영해, 본 지역의 염업도 상당히 역동적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난 윤곽을 토대로 위에 제기된 세부항목을 종합·정리하는 것으로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鹽業의 成立과 관련해서는 지형·기후·식생의 3대 조건이 설명변수로 등장하였다. 일차적으로 浦港漸塞하던 당시의 실정을 감안해 염전면으로 활용가능한 干瀉地가 수직·수평적으로 확대일로에 있었던 점은 염업뿐만 아니라 후대의 잠재적인 간척지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기후요소 중 降水의 季節的 分布는 본 지역의 자연이 춘계위주로 진행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으며, 변산을 비롯한 주변 산지의 풍부한 松林은 전산업시대 염업의 성패를 좌우한 연료상의 압박을 다소나마 경감시켜 주었다.

17세기 위기상황 이후의 비교적 안정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인구증가, 지주-전호제하의 광작에 따른 농민충분해 및 신분해방 추세, 사회생산력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한 지역간 분업의 조장과 그로 인한 교환경제의 심화, 어업의 활성화, 법제의 정비 등을 포함하는 제반

사회적 여건은 鹽業發達의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鹽場은 나주·영광·옥구와 함께 호남내에서 鹽利가 가장 많았던 곳으로 분류된 古阜郡, 扶安縣, 茂長縣의 3개 군과 興德縣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였는데, 일부의 예를 제외하면 1918년 조선총독부간 1:50,000 지형도상에 표기된 염장 대부분이 연구대상 시기에도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부의 염장은 越境地인 富安面에 소재하며, 특히 무장의 黔堂은 6세기경 백제의 고승에 의해 염업이 시작된 이래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운영된 사정이 있어 苗浦灣의 煮鹽史를 살피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18·19세기 줄포만의 製鹽法은 염밭갈이를 통해 얻어진 鹽土로 석등을 구축하여 鹽水를 추출해 활용하는 鹽田法을 취하는 동시에 적어도 제염 마지막 단계에 화력이 가해지는 煮鹽法(火鹽法)이라 하겠다. 鹽幕 1庫당 경영면적은 약 3,000평, 석등 하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염장면적은 석등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보이기는 하나 평균 200~300평으로 나타난다. 제염과정에서 牛耕과 鐵釜의 사용은 노동력·절감 및 생산량 증대의 핵심요소였으며, 염수의 염도를 측정하거나 자염시 거품을 분리해 쓴맛을 제거하는 따위의 행위는 경험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기는 하나 상당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投稿 1994년 2월 15일)

註

- 1) 엄밀히 말해, 1895년 8道에서 23府制로의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한 이후에는 고부를 비롯한 4개 읍의 경우 全州府관하의 郡이 되었고, 다음 해 13道로 다시 바뀌면서 부서는 고부군·부안군이 전라북도, 무장군·홍덕군은 전라남도로 편입되었다.
- 2) 과거의 기후상황이 지금과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일례로 학자들간에는 17·18세기에 관측되는 이상저온 현상과 관련해 '소빙기'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8·19세기의 기후상황을 엄밀히 파악하고자 한다면 당시의 기상관측치에 기초한 정량분석이 요구될 것이지만 그러한 국지

文 獻

적인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관계로 굳이 현대의 관측치에 기초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수치상의 차이는 있을 것이 분명하나 각종 기후요소의 연간패턴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丁若鏞, 『經世遺表』 卷14, 均役事目追議 1, 鹽稅條.

鹽 稅	京畿	海西	湖西	湖南	嶺南	嶺東	關北	關西
1等 24兩				40處				
2等 21兩				42				
3等 18兩				48				
4等 15兩		60處		51				
5等 12兩		70		57				
6等 9兩		67	70處	62			80處	80處
7等 6兩	80處	72	90	70	100處	70處	100	80
8等 4兩	111	80	80	74	200	90	90	90
9等 2兩	200			80	300	80		100

- 4) 黔堂에는 본래 도적이 많았는데 黔丹禪師가 이들에게 소금만드는 법을 가르쳐 생업으로 삼게 하고 세를 납부케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세를 拒納하자 鹽井의 鹽水를 이용해 힘들이지 않고 제염하던 直煮法을 철폐시키고 勞役이 소요되는 鹽田法으로 바꾸어 懺悔케 하였다는 내용이다.
- 5) 여기서 鹽場이란 자연이 행해지던 치소 즉, 작업장을 일컫는데 煮鹽所, 鹽煮處 혹은 鹽所와 혼용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鹽所는 고려시대에 관수 용품을 조달하던 특수취락으로서의 ‘所’와는 달리 단순한 場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의 작업소는 후대에까지 지명으로 남아 염장의 위치를 확인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 6) 古阜郡: 鹽盆 25坐, 稅錢 118兩 1錢(『邑誌』, 1895)
 興德縣: 鹽盆稅 35兩 9錢 3分(『邑誌』, 1872), 53兩 5錢(『邑誌』, 1895)
 扶安縣: 鹽盆稅錢 498兩(『輿地圖書』, 1765)
 鹽幕 49處(崔鳳煥, 『扶安志』, 1887), 鹽幕 31庫(『邑誌』, 1895)
 茂長縣: 鹽稅錢 798兩(『輿地圖書』, 1765)
- 7) 현지 주민들은 ‘섯물린다’, ‘조금들인다’는 표현으로 두가지 작업을 구분한다.

高承濟, 1959, 近世韓國產業史研究, 大東文化社, 122-207.

金日基, 1991, “煎熬鹽 製造方法에 관한 研究,” 문화역사지리, 3, 1-18.

朝鮮總督府 農商工部水產局纂, 1911, 韓國水產誌 3卷.

度支部臨時財源調查局, 1907, 韓國鹽業調查報告 第1編.

各司謄錄, 國史編纂委員會(1985~).

古阜郡地圖(奎. 10496)

均役廳事目(奎. 17253)

大東地志, 金正浩, 漢陽大附設 國學研究所(1976).

兜率山禪雲寺創建勝蹟記, 東國大佛敎文化研究所(1966).

林園經濟志, 서유구, 保景文化社(1983).

茂長郡魚鹽船箭納庫數稅錢查辦成冊(奎. 19463)

茂長縣地圖(奎. 10469)

備邊司謄錄, 國史編纂委員會(1959).

新增東國輿地勝覽, 盧思慎 外, 明文堂(1981).

全羅道邑誌, 亞細亞文化社(1983).

擇里志, 李重煥, 朝鮮光文會(1931).

戶口總數, 서울大古典刊行會(1971).

龜井千步子, 1979, 鹽の民俗學, 東京書籍.

平島裕正, 1982, 鹽, 法政大出版局.

Bridbury, A.R., 1955, *England and the Salt Trade in the Later Middle Ages*, Clarendon Press, Oxford.

Harlan, W.G., 1955, *Cultural Diffusion via Salt*, *American Anthropologist*, 57(5), 1011-1015.

Jakle, J.A., 1969, *Salt on the Ohio Valley Frontier, 1770~1820*,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59(4), 687-709.

A Study on the Traditional Salt-Making of the *Joolpo* Inlet Area During the 18th and 19th Century

Keum-Soo Hong*

Summary

Among every civilized people salt has been recognized as an essential foodstuff to the human society without which even man's survival is unthinkable. The cultural-anthropological meaning of salt is estimated highly as well, and in geographical perspective salt itself symbolizes regional interrelationship. Playing a decisive role in freeing innermost settlement from isolation, salt also made a contribution to expanding human habitats.

This study tries to reconstruct historical geography of 18th and 19th century surrounding traditional salt-roasting(*chayeom*). The *Joolpo* Inlet area which is located on the mid-western coast in *Honam* Region is selected for study area. Established on the basis of optimum physical geographical conditions such as topography, climate and vegetation, salt-making of *Joolpo* Inlet area was run dynamically with the sudden turn of events in the 18-19th century which was characterized as an age of transition from medieval society to modern one.

In this paper the writer attempts to clarify mainly following three points: physical condition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leading to the initiation and later development of roasting of salt in *Joolpo* Bay; distribution of saltworks; methods of salting. Main points drawn from these analys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of iron pan and cow-drawn tools rendered labour-saving and output growth.

1. Saltworks of *Joolpo* Inlet area in the 18-19th century were distributed evenly over *Kobu*, *Puan*, *Mujang* and *Heungduck* counties among which *Kobu's* was located in *Puanmyon*—a sort of exclave. All saltworks belonging to above four counties were classified as most lucrative ones in *Honam* Region on government archives. In particular, *Gumdang* saltwork which belongs to *Mujang* county is noteworthy in that it was first introduced by one *Paekje* priest in 6th century and therefore it provides a clue to examine the history of salt-roasting of *Joolpo* Inlet area. In light of the fact that temple or monastery economy, regardless of East and West, has been closely connected with traditional industry, the case of *Gumdang* is not unusual.

2. The process of salting follows this order: harrowing of salt field exposed to solar heat; construction of saltern mound with saline earth; acquiring of brine by leaching saline earth; roasting of salt. Salterns(saltworks) are consisted with various salt making facilities such as roasting shed, saltern mound, salt field, salt well) salt pit or brine pit) and seawater reservoir. Among them roasting shed which is constructed chiefly with hundreds of pieces of pine tree as a frame and with straw as roof and wall is customarily considered as an unit of saltwork. And inside it is saltpan made of two kinds of materials, that is iron pan or plaster pan. The area attached to one unit of roasting shed is approximately 1ha, and that of saltern mound is a tenth of it. The adoption

Key Words: *chayeom*, roasting shed, saltern mound, salt field, salt well.

* Graduate Student, Korea University.